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분포특성 분석

Analysis on distribution attribute of material & component specialized firm

신중경* 강성룡**

JoongKyung Shin, SeongRyong Kang

I. 서론

부품소재산업은 중간재산업으로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수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제성과 전파(spill-over)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경제의 균형발전에도 중요하다.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이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등은 그 자체가 부품소재에 해당되며, 미래형 자동차, 디지털 TV 등의 기술수준은 핵심 부품소재에 좌우된다. 부품소재산업은 선진국 주도형 미래첨단산업으로, 1980년대 들어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중전의 완제품(full-set)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핵심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기술 중심의 국제 분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표준(global standard) 및 기술선점을 위한 노력이 가속되고, 인터넷 구매의 활성화로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완제품 수출위주의 육성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품소재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부품소재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 29.3%에서 2003년 44.3%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대외의존도 심화, 특정 품목 및 시장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80~1990년대에는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시책', '자본재산업 육성정책' 등을 추진하여 4,200여개의 범용 부품소재의 수입대체를 달성하였으나, 원천기술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2001년에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단순 수입대체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부품소재 관련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부품소재별 수출입동향을 파악하여 부품소재별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기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된 정문갑(2002)의 연구는 수출입의 현황을 분석하였지만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운규와 이정동(2004)은 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국가 간 비교이며 다양한 지수를 활용하였지만, 부품소재산업내의 부문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연계 산업에 대한 영향력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기술전략 수립을 위하여 부품소재 산업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관점에 입각해서 2006년 9월 현재 지정된 1900여개의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분포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 신중경,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02-6009-3115, jkshin@kotef.or.kr

** 강성룡,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02-6009-3113, srkang21@kotef.or.kr

II.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38%(2003년), 제조업 종사자의 46%(2003년)을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부품소재 수출은 1988~2003년간 연평균 11%로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의 20%대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40%대로 증가하였다.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1997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들어 평균 40% 이상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경쟁력이 개선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8%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부품소재 전반에 걸쳐 국산화율 제고 및 전 세계적 조달(global sourcing)이 진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최근 부품소재 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은 원천 기술 부족, 수출입 편중, 관련기업의 영세성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력이 취약하여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부품소재 분야별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기술을 100을 기준으로 한 비교에서 가장 취약한 플라즈마 기술의 35에서 일반 전자부품의 70까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소재 및 가공조립 업종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생산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전기·전자산업의 국산화율이 급속히 낮아져 2000년에는 55%에 불과하다. 국제 경쟁우위에 있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평면 디스플레이, TV 및 부품품 등 5대 IT산업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IT산업 수출액의 97.5%,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원자재의 65%를 수입에 의존한다 (한국은행, 2004).

부품소재의 교역은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와 중국에 대한 수출 편중이라는 2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2,150억불)중 부품소재 수입이 주된 적자요인이었다. 전체 대일 수입 중 부품소재 비중은 98년 66%, 99년 65%, 2000년 62%, 2001년 62%, 2002년 61% 등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이후 세계의 생산기지로 전환되면서, 중국정부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중화학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에 따라 관련 부품소재의 중국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1994~2000년 기간 중 부품소재 수입규모가 연평균 17%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한국의 중국 수출은 연평균 23% 급증하였다.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이후 급증하여 2004년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39.1%를 중국에 수출하는 등 수출편중 심화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고성장 전략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였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은 소홀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품소재 기업이 조립가공 위주의 대기업에 대한 하청 형태로 수직 계열화되었고, 규모의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 부품소재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신뢰성 부족, 수요기업과의 수직적·전속적 거래관행 등으로 인해 독자적 기술개발과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문제점을 위한 정책적 수립 지원을 지향하는 경쟁력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술 통계는 <표 1>와 같다. 부품소재산업의 2003년 수입액은 758억 원으로 2001년 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100대 부품소재의 2003년 수입액은 108억 원으로 2001년 대비 71.6% 증가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수입증가율을 훨씬 상회한다. 부품소재산업에서 100대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2001년 10.6%에서 2003년 14.3%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입교역 비중은 2001년 8.1%에서 2003년 10.3%로 증가하였다. 100대 부품소재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전자부품은 2001년 대비 83.3%의 수입증가율을 보이며, 품목당 수입액은 평균 1억 7천만 달러 규모이다.

<표 1> 부품소재산업과 100대 부품소재의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부품소재산업의 수입액			100대 부품소재의 수입액			100대 부품소재에 포함된 품목 수(B)	품목당 수입액 (A/B, 2003년)
	2001년	2003년	증가율	2001년	2003년 (A)	증가율		
전기전자	28,286	35,202	24.5%	2,756	5,051	83.3%	29	174.2
기계	6,537	9,201	40.8%	1,049	1,605	53.0%	20	80.2
수송기계**	2,806	3,419	21.8%	852	1,592	86.8%	13	122.5
금속	9,662	13,699	41.8%	240	493	105.3%	6	82.2
섬유	2,175	2,183	0.4%	46	148	221.9%	5	30.6
화학	9,945	12,139	22.1%	1,377	1,953	41.8%	27	72.3
계	59,411	75,843	27.7%	6,320	10,842	71.6%	100	108.4

부품소재 산업 내에서 100대 부품소재 산업의 비중은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100대 부품소재는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비중과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0대 부품소재의 경쟁력 분석은 한정된 정부 R&D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부문별로는 기계부품, 수송기계부품, 화학소재는 2003년에 15억 달러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금속소재, 섬유소재의 수입규모는 크지 않으며, 단위품목당 수입액은 평균 8천 2백만 달러, 3천만 달러 정도이다. 수입규모가 가장 큰 전기전자부품의 교역비중은 평균수준이며, 기계부품, 수송기계 부품은 평균이상의 수입 및 교역비중을 보이고 있어 해당 부품소재의 교역집중도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속소재와 섬유소재는 수입증가율은 높으나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수입 및 교역비중은 소폭 증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화학소재의 경우, 교역비중은 8%이며, 수입비중은 평균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특화 심화가 예상된다.

<표 2> 부품소재산업에서 100대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수입 비중			교역 비중		
	2001년	2002년	2003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기전자	9.7	12.2	14.3	7.9	9.1	10.8
기계	16.0	16.5	17.4	15.3	16.2	16.5
수송기계****	30.4	33.6	46.6	17.8	19.5	21.0
금속	2.5	3.0	3.6	3.3	4.3	4.3
섬유	2.1	2.4	6.8	3.6	5.2	6.5
화학	13.8	14.7	16.1	8.1	8.0	8.8
계	10.6	12.4	14.3	8.1	9.2	10.3

* 한국무역협회, KITA.NET

** 수송기계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금액

*** 한국무역협회, KITA.NET

III. 부품소재 전문기업 분포특성

1.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정의 및 분포

1)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정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부품소재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말한다.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정의는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부품·소재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집중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은 2002년 12월에 484개사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 증가하여 2005년 9월 현재 1966개가 지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9월 시점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들의 명단을 입수한 후 이를 한국신용평가가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와 연동하여 재무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포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정보를 5년치를 받아서 이의 평균값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분포특성을 도출하였다. 5년간 재무정보의 평균값을 활용한 이유는 특정 일년치의 값을 활용할 경우 산업환경적 요인이나 경기요인으로 인한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일반적 분포 특성

부품소재전문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 3>에 정리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종업원수 30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95.72%인 1880개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비중은 84개사(4.28%)로 나타났다. 부품소재 전문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중 중소기업들을 육성하여 이들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업규모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중소기업	1880	95.72
대기업	84	4.28
합계	1964	100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분포를 먼저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은 기타기계 및 일반장비 제조업과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가장 많은 365개사(18.5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71개사, 13.7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72개사, 8.75%)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63개사, 8.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자, 통신제품의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국내 산업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수송기계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금액

<표 4>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업종별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음식료품 제조업	3	0.15
섬유제품 제조업	56	2.8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0.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0.1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0.0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	0.1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63	8.3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5	3.8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2	2.65
제 1차 금속산업	157	7.9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28	6.5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5	18.5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6	0.8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72	8.7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65	18.5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7	4.9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1	13.7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	1.12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1	0.5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	0.15
합계	1965	100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형태별 분류를 <표 5>에서 정리하였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다수는 일반기업(929개사, 47.28%)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외감기업(548개사, 27.8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코스닥 등록(132개사, 6.72%)이나 상장사(42개사, 2.14%)로 나타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전략은 일반 및 외감기업의 매출액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이들을 코스닥 및 거래소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고, 이들의 사업이 고도화됨으로써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5>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형태별 분류

	빈도	유효 퍼센트
상장사	42	2.14
금감위 등록	105	5.34
코스닥 등록	132	6.72
외감	548	27.89
일반	929	47.28
공기업	209	10.64
합계	1965	100

<표 6>에서는 기업규모와 기업형태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카이제곱(Chi-Square)값이 604.550으로 99%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품소재전문기업 중 상장사 중 73.81%인 31개사가 대기업인 반면, 외감기업과 일반기업의 압도적 다수는 중소기업 (각각 97.08%, 99.57%)인 것으로 나타

났다. 부품소재전문기업 중의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 중소기업이며, 이들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코스닥 등록 및 상장사인 기업의 비중이 6.33%인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전문기업 중 중소기업의 규모 및 수익성이 아직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규모와 형태간 관계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상장사	11	31	42
금감위 등록	97	8	105
코스닥 등록	108	24	132
외감	532	16	548
일반	924	4	928
공기업	208	1	209
전체	1880	84	1964

Chi-square : 604.550(p<0.01)

3)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재무적 특성분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매출액 분포를 <표 7>에서 나타내었다. 부품소재전문기업들의 62.53%가 매출액 100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중견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매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90개사(4.95%)인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표 7>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매출액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10억 미만	255	14.01
10억 이상 - 100억 미만	883	48.52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592	32.53
1000억 이상	90	4.95
합계	1820	100

<표 8>에서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매출액과 기업규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전문기업의 압도적 다수인 99.56%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 중에서 5개사가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1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구간에도 30개사(35.71%)가 분포하고 있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영세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매출액과 기업규모와의 관계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10억 미만	251	2	253
10억 이상 - 100억 미만	880	3	883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562	30	592
1000억 이상	41	49	90
전체	1734	84	1818

Chi-Square : 552.371(p<0.01)

<표 9>에서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영업이익 분포를 살펴보았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20.15%가 영업이익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억원 미만인 기업도 14.06%인 256개사로 조사되었다. 영업이익이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인 기업기 가장 많은 754개사(41.41%)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9>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영업이익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적자	367	20.15
1억 미만	256	14.06
1억 이상 - 10억 미만	754	41.41
10억 이상 - 100억 미만	393	21.58
100억 이상	51	2.80
합계	1821	100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업규모와 영업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기업 중에서도 6개사가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업임에도 영업이익이 1억 이상 - 10억 미만인 기업이 5개사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78.67%의 기업이 영업이익 10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수익성의 열악함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영업이익과 기업규모와의 관계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적자	360	6	366
1억 미만	256	0	256
1억 이상 - 10억 미만	749	5	754
10억 이상 - 100억 미만	354	38	392
100억 이상	16	35	51
전체	1735	84	1819

Chi-Square : 543.871(p<0.01)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보면, 매출액이 낮을수록 영업이익이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의 86.05%인 기업이 매출액 100억 미만인 기업으로 조사되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기업의 51개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인건비 투자가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의 관계

		영업이익구분					전체
		적자	1억 미만	1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매출액 구분	10억 미만	155	95	4	1	0	255
	10억 이상 - 100억 미만	160	153	536	34	0	883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50	6	213	314	9	592
	1000억 이상	1	2	1	44	42	90
전체		366	256	754	393	51	1820

Chi-Square : 1806.412(p<0.01)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당기순이익 분포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당기순이익 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인 기업이 36.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 미만이 437개사(24%)였으며, 적자인 기업이 375개사(20.59%)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에서도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당기순이익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2>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당기순이익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적자	375	20.59
1억 미만	437	24.00
1억 이상 - 10억 미만	669	36.74
10억 이상 - 100억 미만	300	16.47
100억 이상	40	2.20
합계	1821	100

<표 13>에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이한 점은 매출액이 작을수록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부품소재 산업에서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중견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중에서도 8개사는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볼 때,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생산성 향상 지원 및 공장자동화 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3>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

		당기순이익구분					전체
		적자	1억 미만	1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매출액 구분	10억 미만	112	137	5	1	0	255
	10억 이상 - 100억 미만	181	280	402	20	0	883
	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76	19	259	231	7	592
	1000억 이상	5	1	3	48	33	90
전체		374	437	669	300	40	1820

Chi-Square : 1393.597 (p<0.01)

<표 14>에서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분포를 보았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1억 미만을 투자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461개사(28.4%)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3억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61.05%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 혁신역량의 구축을 위한 투자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14>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연구개발비 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1억 미만	461	28.37
1억 이상 - 2억 미만	326	20.06
2억 이상 - 3억 미만	205	12.62
3억 이상 - 4억 미만	124	7.63
4억 이상 - 5억 미만	114	7.02
5억 이상 - 6억 미만	79	4.86
6억 이상 - 7억 미만	49	3.02
7억 이상 - 8억 미만	33	2.03
8억 이상 - 9억 미만	38	2.34
9억 이상 - 10억 미만	19	1.17
10억 이상	177	10.89
합계	1625	100.0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을 <표 15>에 나타내었다. 당기순이익에서 적자인 기업의 8.88%인 31개사가 연구개발비를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반면, 당기순이익이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30.18%인 182개사는 연구개발비를 1억원 미만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부품소재전문기업 안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10억 이상씩 사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안정적인 기업들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5>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구분					전체
		적자	1억 미만	1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개발비 구분	1억 미만	82	161	182	36	0	461
	1억 이상 - 2억 미만	60	113	123	30	0	326
	2억 이상 - 3억 미만	56	35	88	23	3	205
	3억 이상 - 4억 미만	27	16	60	19	2	124
	4억 이상 - 5억 미만	28	10	48	27	1	114
	5억 이상 - 6억 미만	23	5	28	22	1	79
	6억 이상 - 7억 미만	15	1	19	14	0	49
	7억 이상 - 8억 미만	6	1	9	16	1	33
	8억 이상 - 9억 미만	15	3	13	7	0	38
	9억 이상 - 10억 미만	6	0	4	8	1	19
	10억 이상	31	9	29	77	31	177
전체		349	354	603	279	40	1625

Chi-Square : 517.428 (p<0.01)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분포특성을 재무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분포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몇가지 특성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들 중 압도적 다수가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60% 이상의 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이라는 것이다. 부품소재전문기업들이면 특화된 분야의 핵심부품과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지만 아직 기업규모가 작음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기업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또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면 고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하도급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의 규모로는 이런 수준의 기업이 되기에는 요원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들의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5년간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을 평균이 -3.08%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집중지원하고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들의 수익구조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할 것이다. 향후 기업간 네트워크 경쟁이 심화되면, 부품소재에서의 경쟁력이 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보면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기업은 희소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부의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절차에서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를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장기적 혁신역량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미래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고연구개발투자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영안정 자금의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이상이면서도 연구개발비를 5억원도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어 분포의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품소재전문기업들도 충분한 당기순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 판로의 확대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요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업종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자, 통신, 전기기기, 일반기계에 종사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산업구조적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자동차 및 전자부품 중 상당수의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입통계를 본다면, 주력업종에서 핵심부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정(2005),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정문갑. 2002.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은행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2005.
한국은행,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 2004.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2003.
한국은행. 2004. 「IT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